통권 No.54 2019년 7/8월호
CNP CNP 차앤박피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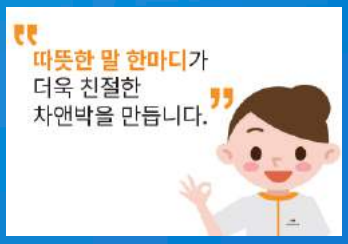
COOL SUMMER



CNP CLINIC
휴가지 피부수호 중대발표
유비무환 피부 지킴이 필독사항



CNP STORY
꾸준하면 위대해진다,
당신의 스킨히스토리를 기억하세요



CNP NEWS
2019 차앤박피부과 워커밸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차앤박씨"

휴가지 피부 수호 중대발표

유비무환 피부 지킴이 필독사항

자외선 무서운 거 다 안다. 하지만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한여름밤의 추억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아래 빨갛게 달아오르는 피부를 보고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추억만들기를 하는 동안 태양은 계속 빛나고 아름답지만 내 피부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 벌레들과의 사투도 시작된다. 내 피부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휴가지에서 피부건강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POINT 01

휴가지에서 일광화상 단계별 대처법

일광화상(SUNBURN)

들으면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흔한 증상이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생기는 현상인데 가벼운 화상 상태로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따갑고 화끈거린다. 자외선 중 자외선 B에 의해 주로 나타나며, 태양 노출 후 4~6시간 뒤 발생, 24시간 내에 최고에 도달한다.

피부가 손상된 정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에 2시간 정도 노출된 후부터 태양의 위협은 시작된다. 물론 각자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30분 정도만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바로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시간 정도는 겉으로 보기엔 무리가 없는 사람도 있다.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잠깐의 자외선 노출도 피부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자외선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점진적인 색소침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 후에는 즉시 열기를 식혀주고 보습에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홍반 반응은 자외선에 노출시 피부가 빨갛게 되는 '즉시 홍반'과 노출 후 30분에서 4~5시간 뒤 나타나 1~2일간 지속되는 '지연 홍반'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외선 노출을 중단하고 일단 차가운 물로 열을 식혀주는 게 좋다.
노출 부위에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절대 손으로 건드리지 말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찜질하여 열을 식히고 최대한 빨리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물집은 건드리지 않고 관리만 잘 해준다면 2~3일에서 3~4일이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터트리게 되면 세균이 침입, 피부질환으로 발전하여 곪기도 한다. 흔하지 않게 그냥 두면 오한, 발열 등 전신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까맣게 탄 경우 물집이 잡히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피부손상은 심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피부가 너무 건조해졌으므로 집중 보습케어 및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면 수포를 유발하여 물집이 동반될 가능성이 커 2차 감염이 우려된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POINT 02

휴가지에서 벌레로부터 피부 지키기

누구나 여름철 모기와 이름 모를 벌레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기향을 피우고 새로 나온 온갖 종류의 벌레 퇴치용 제품을 방마다 설치했건만 유명무실이다. 특히 지난 늦봄에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 넣은 야생진드기로 인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벌레들은 여성호르몬, 습기, 산소, 땀에 포함된 락틴산을 좋아하는데 같이 생활해도 유난히 잘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벌레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피부반응은 모기, 개미 등의 타액 속에 포함된 독소에 의한 반응이다. 대개는 피부에 홍반(붉어짐)과 함께 물린 자리가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이 생기게 된다. 가끔 물집이나 심한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다보면 상처가 생기고 이곳으로 균이 침투하여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물렸을 때는 환부를 잘 씻은 다음 멘톨, 페놀, 캄퍼,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포함된 외용약을 사용하여 가려움증을 감소시켜주고 2차 감염이 있는 경우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다. 물린 부위가 좋아지지 않고 심해진다면 피부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단 곤충이나 벌레에 물린 자리가 2차적인 알러지 반응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소도포제 치료로도 호전되지만 알러지 반응이 심한 경우는 항알러지약 복용이 필요하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서 지나쳐버리면 심각한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전되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해서 모기나 벌레에 물리면 빨갛게 붓고 2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쉽다. 따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주 목욕하여 습기와 땀을 없애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평소 벌레에 취약한 편이라면 미리 약을 처방받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POINT 03

바캉스 애프터케어, 이것만 알면 피부는 안전해요

바캉스 후 2주 정도 경과하면 어느 정도 태양광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급성상태에서 벗어난 단계이다. 이때 두꺼워진 각질을 제거해 주어야 새로운 피부조직이 생기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각질제거 후에는 보습과 진정효과가 있는 수분크림, 에센스 등을 발라준다. 각질제거 전에 스팀 타올을 얼굴위에 10분정도 덮어주면 흡수가 더 잘된다.



각질제거 후에는 여기에 보습 팩이나 마스크 팩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회복 단계에 있으므로 벗겨내는 타입은 피하고 씻어내는 타입의 팩을 사용한다.

피부는 바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몸 전체 상태가 좋아야 피부도 좋아진다. 수분 공급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미백화장품과 미백 팩은 꾸준히 사용하면 색소가 약간 엷어지고 무엇보다도 기미 주근깨, 잡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은 머리결의 수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케라틴 단백질을 변형시켜 머리가 뻣뻣해지고 윤기와 탄력을 잃게 만든다. 지친 두피와 모발의 회복을 위해 헤어 트리트먼트나 두피 스케일링을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수호를 위해 노력하자.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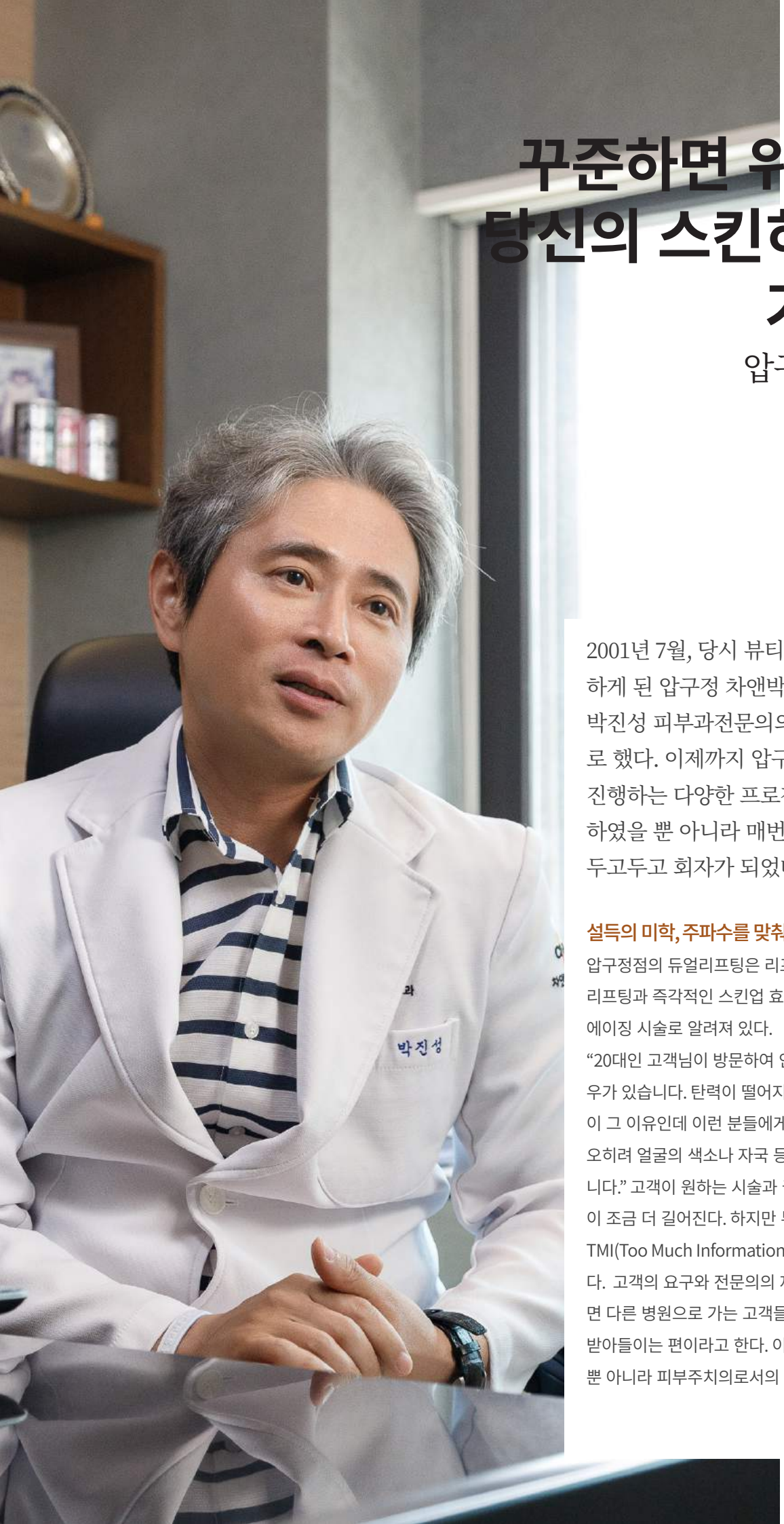
바캉스 막전막후! 꼭 기억해야 하는 피부과 시술

막전, 워너비 바디라인 사수! 워너비바디라인 시술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고 나니 당장 수영복 입는 일이 걱정된다면 차앤박피부과의 워너비 바디라인을 위한 시술 프로그램에 주목하기 바란다. 전체적인 페이스라인을 잡아주는 사각턱 개선 보톡스를 비롯해 종아리 알통, 바디 색소를 잡는 클라로 필링까지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 서두르자.

막후, 색소 줄게 화이트닝 다오! 화이트닝 치료

이미 생긴 주근깨나 기미 같은 잡티는 기능성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하면 색이 옅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힘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피부과 화이트닝 시술을 받는 것이 방법. 간단한 쿨젠테라피나 IVS 미백치료를 통해 피부톤을 맑게 케어한다. 바캉스 2주 후에라면 피부과에 방문하여 내 피부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전문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아보도록 하자.



꾸준하면 위대해진다, 당신의 스킨히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압구정 차앤박피부과 박진성 대표원장

2001년 7월, 당시 뷰티의 신흥메카 '압구정'에 자리하게 된 압구정 차앤박피부과. 그리고 18년. 박진성 피부과전문의의 압구정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제까지 압구정점은 차앤박피부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솔선수범하여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매번 원장님의 주옥 같은 어록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다.

설득의 미학, 주파수를 맞춰야 스킨히스토리는 완성된다

압구정점의 듀얼리프팅은 리프팅 효과가 서서히 보여지는 초음파 리프팅과 즉각적인 스킨업 효과로 리프팅의 만족도를 배가한 안티에이징 시술로 알려져 있다.

"20대인 고객님이 방문하여 안티에이징 시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주름이 생긴 것 같다 등이 그 이유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듀얼리프팅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의 색소나 자국 등 선행해야 하는 치료를 먼저 안내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술과 권해야 하는 치료가 다를 때 진료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하지만 뷰티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술 TMI(Too Much Information) 가 많다는 게 박진성 원장의 설명이다. 고객의 요구와 전문의의 제안의 주파수를 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고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고객의 시술 만족도도 높을 뿐 아니라 피부주치의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꾸준함, 피부는 정직하다

한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용이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 쇼핑하듯 시술을 받는 '의료 쇼핑'이 합리적인 소비로 각광 받았던 적이 있다. 압구정 지역은 특히나 그 세태에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부 치료만은 트렌드를 쫓기 보다는 내 피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피부는 개인의 관리 유무,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역사가 되지요. 어디 병원에 가든 지금까지 받은 시술에 대한 추적은 그 동안의 스킨히스토리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 병원을 다니기 보다는 나만의 피부주치의를 찾아서 스킨히스토리를 완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또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

연장선장에서 피부는 정직하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 피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타고난 피부에 맹신하기 보다는 피부주치의의 시의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

"20년 가까이 피부주치의로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꾸준함'에는 '장사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내 피부에 집중하며 관리해 왔는지, 그 여정에 따라 5년 후 그리고 10년후의 피부상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묻지마 시술을 받기 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따른 처방과 치료를 받는 게 피부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나만의 피부주치의가 꼭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여드름, 피부를 웃게 만들기 START

박진성 원장은 최근 다시 '여드름'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까지 안티에이징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와 시술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압구정점이면서, 무엇보다 발빠르게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곳인데 '다시 여드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부주치의라면 '내 고객이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딱 이 포인트였어요. 화장이 점점 진해지는 이유는 여드름 후유증으로 남은 자국이나 흉터, 모공 확장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 고리를 끊고, 피부를 웃게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여드름 8주 프로그램은 어느새 압구정의 대표 시술 프로그램이 되었다. 스케일링과 압출, 피지클리어레이저와 여드름 미백관리를 중심으로 3주차가 지나면 여드름이 가라앉고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만족감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후 토닝레이저를 겸해 여드름 색소침착을 해결하고 붉은 자국까지 해소하는 8주 프로그램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기본적인 여드름 제거 및 색소와 붉은 자국을 잡아주는 치료로 고객의 피부가 웃는 경험을 하였다.

실제로 치료 후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유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런칭 이후 특별한 마케팅 없이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을 보면서 그 동안의 임상노하우에 기초한 프로그램 구성이 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꾸준하면 결국 위대해진다는 말이 있다. 피부에도 정석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 스킨히스토리, 그것을 알아 봐주고 탐구하는 나만의 피부주치의. 생각만 해도 너무 든든하다. 차앤박피부과 다닌다는 말이 명예롭도록 피부를 웃게 하는 게 피부주치의로서의 소임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 "당신의 스킨 히스토리를 기억하세요!
> 꾸준하면 위대해집니다.
> 당신의 피부주치의와 함께 하세요!"

홍조&혈관 그리고 기미, 피부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홍조에 고민은 있지만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어 홍조나 혈관치료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여드름 및 질환 치료 이후 바로 기미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압구정 홍조&혈관&기미프로그램은 여드름 붉은자국을 잡는 엑셀V 레이저와 혈관 및 모공 그리고 기미에 적용되어 개선효과가 뛰어난 실펌레이저를 결합하였다.

피부 꽃길, 압구정 차앤박피부과의 노하우와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일명 '갑질'을 하는 비매너 고객들 때문에 상처받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배려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차앤박피부과는 고객들의 부당한 언행으로 의료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을 겪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서로 강요하기 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믿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친절한 차앤박씨, 미소짓다

매너소비자 시대라지만 환불 등에 목적으로 둔 일부 블랙컨슈머의 등장이 두렵기만 합니다. 직원의 언행이나 행동이 빌미가 되어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재단되는 현실.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면서 차앤박피부과의 의료서비스 전문가임을 기억해 주세요.

차앤박피부과 워커밸 캠페인, 함께 동참해주세요.

고객과 직원간의 균형 워커밸!!!

당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매너존(MANNER ZONE) 이 됩니다.

2019 차앤박피부과 네트워크 워커밸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친절한 차앤박을 만듭니다."

2019년 7월 차앤박피부과네트워크
24개 지점에서 워커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WORKER-CUSTOMER-BALANCE 워커밸!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인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앤박피부과는

CNP 차앤박피부과

고객과 직원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변화
즉, 고객과 직원의 상호 존중 시대를 이야기합니다.